

이번 주말 25일 제주도 첫 장맛비 시작

-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 육상 강풍, 해상 풍랑 유의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25일(일)~27일(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점차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특히,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25일(일) 오후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고 하며,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올해 첫 장맛비이지만, 제주도에 강하고 많은 비와 강한 바람으로 위험기상이 예상되니, 시설물 점검 철저, 침수 피해 대비와 해상에는 높은 물결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며, 항공기와 선박편의 운항에 영향이 예상되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3년 6월 25일~27일 예상되는 위험기상 설명자료
2. 과거 유사 사례 피해 보도자료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909-3920)
		담당자	전문관 한경훈 (064-909-3920)



[6월 25일(일)~27일(화) 예상 기압계 모식도]

1 강수전망

- 제주지방기상청은 현재(6월 22일 오전)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중국 상해 부근에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어 25일(일) 새벽에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최근 한반도 주변 상공에 머무르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해 25일 제주도와 전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호우) 25일(일)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7일(화)까지 내리겠고, 특히,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25일(일) 오후부터 밤사이, 26일(월) 오후부터 27일(화) 새벽 사이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따라서, 소하천,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거와 저지대 등 상습침수 구역과 산지,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27일(화) 이후에도 제주도 주변으로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안개) 한편, 비가 오는 곳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변동성) 이번 강수는 정체전선의 발달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 집중시간과 강수집중구역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강풍과 풍랑 전망

- (강풍) 25일(일) 오후부터 27일(화)까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전망하였다.
- (풍랑) 25일(일) 오후, 제주도남쪽면바다에, 25일(일) 밤부터는 제주도 전해상으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다.
- 또한, 25일(일)부터 27일(화)까지 제주도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유의사항) 27일(화)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하우스, 간판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와 높은 물결로 인한 해상 및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항공기와 선박편의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사사례1) 2019. 6. 26.

'요란한 첫 장맛비' 제주 전역 호우경보...침수 피해도(종합)

26일부터 늦은 장마 본격 시작...제주도 전역 호우특보

송고시간 | 2019-06-26 13:23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6 09:49 수정 2019.06.26 10:02



전지예 기자
jyoon@yna.co.kr

제주도 재난본부 '비상 2단계' 발령

제주 남해 집중호우 예상...밤부터 전국 확대

(제주=연합뉴스) 전지예 기자 = 26일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됐다.



26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제주 장마 시작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장마가 시작한 26일 오전 우산들은 학생이 제주도 아리동 제주대 캠퍼스를 걷고 있다. jhcopark@yna.co.kr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제주=최승훈 기자] 26일부터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9시를 기준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제주산간을 비롯해 제주서부 북부 남부 동부지역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제주산간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 짧지만 굵은 장마...국지성 호우 잦을 듯

제주도(제주·서귀포 평균)의 평년(1981~2010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20일로, 올해는 장마 시작이 평년보다 일주일여 늦어졌다.

기상청은 26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100mm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20~60mm 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봤다.

장마전선은 이날 오후 일본 남쪽으로 잠시 물러났다가 주말쯤 다시 북상해 또 한 차례 장마비를 뿌릴 전망이다.

새벽부터 제주 곳곳에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올해 장마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예년(6월 19일 시작)보다 1주일 정도 늦게 시작했다. 장마 시작 시기는 예년보다 늦었지만, 종료 시기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1시 현재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제주 76mm, 서귀포 87.6mm, 성산 81.4mm, 고산 104.9mm, 태풍센터 149mm, 대정 143.5mm, 신례 127.5mm, 색달 124.5mm, 한라산 삼각봉 196.5mm, 성판악 182mm, 윗세오름 181.5mm, 영실 175mm 등이다.

하지만 예년보다 북쪽의 찬 공기 세력이 강해 남쪽의 더운 공기와 강하게 대치하면서 좁은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유사사례2) 2018. 6. 30.

"우르릉 광" 장맛비 덮친 제주, 기습적 폭우로 침수피해 속출

(유사사례2) 2021. 7. 3.~4.

한라산 200mm 장맛비...제주 내일까지 최대 150mm 더 내리

A 박성우 기자 (paw@jjoon.net) | © 입력 2018.06.30 14:15 | # # #

입력 : 2021-07-04 11:21 / 수정 : 2021-07-04 12:50



A. 30일 오전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제주시 구덕읍 앞대 농경지. ©제주소리

제주 전역에 많은 비... '시간당 50mm' 동부지역 침수 피해신고 잇따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전동-반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제주 동부지역의 경우 시간당 50mm를 넘어선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한때 태피수 등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오후 9시 59분쯤 제주도 연동 한 공사장 펠스가 넘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9년 만의 '자카 장마'가 시작된 제주 지역에 밤사이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9분쯤 제주도 연동 한 공사장 펠스가 넘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또한 전날 오후 10시14분쯤 제주도 노형동 한 건물에서 간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현 재까지 비바람 관련 3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현재 제주도 육상 전역에는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제주지역은 남쪽 해안에서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고 있다. 모레(7월 2일)까지 제주도 전역에는 100~2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산간지역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27mm, 서귀포 47.3mm, 성산 62.9mm, 고산 33.6mm, 한라산 삼각봉 202mm, 진달래밭 163.5mm, 가시리 94.5mm, 태풍센터 92mm, 새별오름 89mm 등이다.